

# 호세아 이야기

\* 10/21(목) 호세아 ② 6-14장

호세아 1-14장		
고멜과 호세아 1-3장	이스라엘과 하나님 4-14장	
<p>호세아 소개 1:1</p> <p>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1:2-3장</p> <p>[음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 보복</li> <li>· 로루하마 : 긍휼을 받지 못한 자</li> <li>· 로암미 : 내 백성이 아니다</li> </ul> <p>[배반과 거절 / 용서와 사랑]</p>	<p>▶ <b>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b> 4-6장</p> <p>[붕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상숭배(바알/아세라/몰렉 등)</li> <li>· 현실의 풍요와 번영 추구</li> <li>· 자기중심적인 이방종교</li> <li>· 육체적 쾌락</li> </ul> <p>▶ <b>이스라엘, 속이는 활</b> 7장</p> <p>[간음,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강대국 의지 (에굽/아람/앗수르 동맹)</li> </ul>	<p>▶ <b>심판 vs. 한없는 사랑</b> 8-14장</p> <p>[하나님의 심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쁨의 소출이 사라짐</li> <li>· 땅에서 추방됨</li> <li>· 영적 통찰력 상실</li> <li>· 출산 감소</li> <li>· 여러 나라를 떠도는 자 갈아짐</li> </ul> <p>[회개, 의인의 길]</p>

## Before 줄치며 읽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6:1).”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6:3).”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 After 묵상하기

나에게는  
회개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 • 하나님의 진심, 불타는 사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걸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팔로 안으셨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다(11:1-4).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는 다릅니다(11:8, 신 29:23).

놓아야 하나 끝내, 손을 놓지 못하십니다.  
버려야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배반과 거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반복하십니다.  
멸망을 선언하셨음에도, 번복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6:1-3).

불붙듯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랑>입니다.

###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이야기로 푸는 소선지서

## • 이스라엘의 변심, 속타는 방랑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가족이 붙은 걸음이 빨리 악으로 달려갑니다.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며, 뇌물과 아첨으로 가득합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를 따릅니다(4:12).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10:2).

성전과 왕궁을 향한 솔로몬의 두 마음이 두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뉘게 합니다.

친앗수르 정책을 펼칩니다(왕하 15:19).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왕하 17:4).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같습니다(7:8, 11, 16).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갑니다. 열강을 의지하여 조공을 바치며 살아갑니다(12:1).

앗수르는 먹잇감을 찾아 삼켜버리는 독수리입니다(8:1, 신 28:49).

단과 벤엘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의 길’로만 걸었습니다.  
그 음행의 길 끝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독수리에게 삼켜질 것입니다(왕하 17:5-6).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9:17).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 • 하나님의 관심, 애타는 신랑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납니다(5:5, 7:10).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되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아모스와 호세아의 호소에도, 교만함은 끝끝내 회개의 열매를 못 거둡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에 비로소, 마침표가 찍힙니다.

남편을 떠나 바람피우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한눈팔고 있습니다.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의 계속되는 음행에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신랑의 애가 탑니다. 호세아(구원)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구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14:2).”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6:1).  
견고한 죄의 진을 뚫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마침표의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